

창립일 1967.9.17.

제48권 43호 · 2014.11.2.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1부 / 오전 7:30 · 인도 : 최정웅 목사 설교 : 최정웅 목사

2부 / 오전 11:00 · 인도 : 정윤돈 목사 설교 : 최정웅 목사

★ 예배의 부름	인도자	
★ 응답송	찬양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계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 경배의 찬양	15장	다같이
★ 고백과 주기도	(주기도송 : 635장)	다같이
★ 성시교독	85. 요한1서 4장	인도자와 회중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복 제물이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7-12)

찬송	303장	다같이
중보의 기도	1부 : 송길호 집사 / 2부 : 이군재 장로	
성경봉독	왕하4:8-17(구약565쪽), 문1:1-3(신약351쪽)	인도자
찬양	주 하나님의 자비	시온찬양대
말씀의 선포	사랑을 받는 동역자	설교자
봉헌	502장	다같이
★ 봉헌기도		최정웅 목사
세례식		최정웅 목사
성찬식	분병 · 분잔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공동기도		다같이
★ 결단의 찬송	예수 전하세(주보 10면)	다같이
★ 파송의 말씀		인도자
★ 축도		최정웅 목사

다음 주기도 : (1부) 구자성 집사

(2부) 김경수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 2:30

인도 : 정윤돈 목사

R U T C 뉴스	영 상
찬 송	다 같 이
기 도	임 영 순 권 사
성 경 봉 독	인 도 자
꽃 가 족 찬 양	김요한 집사 가정
설 교	정 윤 돈 목 사
필리핀선교헌금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찬 양	다 같 이
<p>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 되는 그날까지 참평안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이 빛의 문화 속에 있을 그때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전심으로 빛의 문화 이루어지는 그 곳까지 여리고가 시작되는 날 시막에 생수가 바다에 길 나는 날 핏박과 환난이 방법이 되는 날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날 그때 그곳에</p>	
축 도	정 윤 돈 목 사

다음 주 기도 : 최명자 권사

다음 주 꽃가족 찬양 : 이상구 집사 가정

수요기도회

오전 10:30 / 오후 7:30

인도 : (오전) 정윤돈 목사 / (오후) 이남현 목사

기 도	(오전) 오난희 집사 / (오후) 홍미경 집사
설 교	인 도 자
봉 헌	다 같 이

다음 주 기도 : (오전) 유자연 집사

(오후) 양순옥 권사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8:00

인도 : 최정웅 목사

기 관 보 고	예 배 위 원 회
설 교	최 정 웅 목 사
합 심 기 도	다 같 이

다음 주 지역보고 : 3지역 (거여·마천구역, 장지·기락2구역, 문정·기락1구역, 강서구역)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이남현 목사 / 진영애 전도사 (화) 진영애 전도사 / 이남현 목사 (수) 강요한 목사 / 이희숙 전도사
 (목) 김요셉 준목 / 정윤돈 목사 (금) 정윤돈 목사 / 강요한 목사 (토) 이희숙 전도사 / 김요셉 준목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층 새가족실에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성경공부는 매주일 오전 10시 20분에 2층 식당 새가족(VIP)실에서 있습니다.

■ 교회소식

- 11월 성찬식이 오늘 주일1부, 2부예배 시간에 있으며, 세례식이 주일2부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성도님과 유아세례를 받는 렘넌트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금요기도회(11월 7일) 기관보고 담당은 예배위원회입니다.
- 추수감사예배가 11월 16일(11월 셋째 주) 주일에 있습니다. 임직감사예배가 함께 드려집니다.
- 임직자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 주일2부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3일(2015학년도 수학생력시험일)까지 매일 오후 9시에 4층 자료실에서 있으며, 수험생 축복기도회가 11월 9일 오후 1시에 4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대학 실업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 이남현 목사 / 수험생 : 민여정, 박근혜, 오아라, 윤현, 이영신, 장현우, 조형우, 이채은 - 명단에 누락된 분은 교역자실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5년도 요람 제작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기타 정보가 변경되신 분은 교역자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청 마감은 11월 9일입니다. (요람 제작 담당 : 김요셉 준목)
- 전교인 자체 선교캠프가 일본 히로시마 참사랑교회를 베이스캠프로 하여 2015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선교캠프 총괄 담당인 강요한 목사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월 25일 주일예배를 히로시마 참사랑교회에서 드리게 되며, 나머지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여 주일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교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 접근하고 참여하기 용이하도록 갱신되었으며, 홈페이지 주소도 www.truelove.church 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주소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갱신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마라톤 행사가 11월 9일(다음 주 주일) 오전에 양재대로에서 진행됩니다. 교통이 통제되므로 차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시간에 늦지 않도록 시간과 경로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기도수첩과 성경읽기노트, 300명 전도대상자를 위한 기도수첩을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 교우소식 및 기관소식

1. 성도 가정 렘넌트의 출산을 축하합니다. (최봉식 장로-최신주 집사 가정 득녀, 10월 30일)
2. 2015년 전교인 자체 선교캠프 일정을 의논하기 위한 국내외선교부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선교부 부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남산교회, 여전도회를 비롯한 각부 자치기관 총회가 11월 9일(다음 주 주일)에 기관별로 있습니다.
4. 교역자들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정웅 목사 : 11.4, 울산지회 지역전도집중훈련 - 울산 문수월드컵 컨벤션
(2) 정윤돈 목사 : 11.5~8, 일본기독교단 복지협의회 총회 참석 - 일본 오카나와현 나하시
(3) 이병부 목사 : 11.5~12, 몽골순회선교캠프 - 몽골 울란바토르시
5.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백순덕 권사, 신옥희 권사, 박현우 권사, 이광철 집사, 김옥이 성도, 임영순 권사, 한영화 권사, 박지영 권사)

■ 훈련 및 집회소식

1. 제142기 70인차 합숙훈련이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제685기 1차합숙훈련이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신청-문의 : www.daraktc.net)
2. 12월 새가족수련회가 12월 16일에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11월 3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3. 치유사명자대회가 '묵상, 집중, 깊은 기도'라는 주제로 11월 10일에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4. 미주렘넌트대회 리더수련회가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본대회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열립니다. (문의 : 세계렘넌트총국 02-2643-0745, www.remnantministry.com)
5. 동계 유럽 렘넌트수련회가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독일 하팅엔 하우스프리데 청소년수양관에서 열립니다. 태국 및 케텐 렘넌트집회가 2015년 1월 20일에 태국 메솿과 메사리양에서 열립니다. (문의 : www.rutc.com)

11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행사	본부집회
1주차	새벽헌신예배(1), 세례식, 성찬식	울산지회 지역전도집중훈련(4)
2주차	공동의회	치유시명자대회(10-11), 어교역자수련회(11)
3주차	추수감사절, 임직식,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화요집회(18), 램프투데이-천안(22)
4주차		제11차 미주랩넌트대회(27-29)

11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예배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신승훈 장로 (위원) 여준석 이성도 김장환 박지영 이효숙 홍승희 김경희A 양은숙 신혜선				
	성찬위원	(5층) 신승훈 김성열 장영균 김현 강현자 오신자 김경수 (6층) 유경형 최영철 주재진				
	안내위원	(위원장) 송영희 장로 (1층) 박지영 이효숙 (5층) 홍승희 김경희A 양은숙 신혜선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식당봉사	11.2	11.9	11.16	11.23	11.30	
	송파, 잠실, 성남 수서	올림픽1, 2, 3	방이 1, 2, 3	성내, 둔촌	천호, 고덕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최정웅 정운돈 강요한 이남현 이희숙 전인숙 진영애 김요셉 이병부 김경수 최영철 오국환 정영규 어동훈 최명홍 정세완 김중복 신승훈 김성열 서정래 정영균 리종화 송영희 강현자 김현-임경미 전정아 최신영 김경열 유자연 김해정 오유라 장현규 주예진 최승하 박재웅 정민호 박희영 장창호 천혜수 김수득-이미숙 장유진 최일숙 장유선 박광현 조영주 김중남 윤미경 이계옥 유제숙 박재웅 김수형 임소순 박준민-황인선 배준서 이명 김복순 김경애 정민호 최신혜 김대우 박유신 이종남 이흥근 김경희 손병순 한경숙 손완식 양은래 김남숙 김경희 김요한 김지현 이학순 위승자 김순호 임영순 장성순 김금남 최명자 박영인 서성원 이정미 최후순 최양호-오난희 오영숙 박인자 김종일-최숙영 박나순 김영진-최혜숙 이신아 이효숙 도정호 윤홍광 장영숙 이은희 김순이 박동욱 김지영 김영희 김종일-최숙영 박나순 김영진-최혜숙 이신아 이효숙 도정호 윤홍광 장영숙 이은희 김순이 박동욱 김지영 김영희 양경심 배운주 흥미영 김창대 이성도 이정운 이순덕 유영석 박승숙 이정택 이은숙 한서연 임근일 무명74
심일조	최봉식 최신주 이효숙 흥미영 송영희 오국환-이은희 박준민-황인선 정선희 최승하 박연재 양영심 어동훈-백소정 장성순 박나순 최양호-오난희 김정순 김태운 임혜연 김중복 이영운 강건수 유경형-리종화 이명 정년영 장영호 박광현 조영주 이영순 임근일 양은숙 장유진 김석재 손혜옥 장창호 유제숙 김석재 윤대자 안경호 최칠규 한영화 여준석 양영아 이정택 이은숙 김수득 김신혜 이명재 구윤진 이은옥 이종남 김요한-김지현 이은숙 김현성-이미화
감사헌금	김요한 유자연 최신영 이흥근-김경희 최양호-오난희 김장환-김지연 이효숙 윤영애 장영호 임영순 원철호-홍정아 이은숙 전혜진 최명홍 이계옥 박동영 최진희 박광현 조영주 김영이 김미선 최순화 박기범 무명1
수요예배	정운돈 강요한 이명 박희영 리종화 김중남 김금남 양영아 김미선 정향란 양은숙 이은희 박준민-황인선 유제숙 이영아 이은숙 박지영 김현-임경미 무명40
심방감사 지교회	안진성-문경화 박수진 김금남-김효민 천우지교회
선교헌금	이남현 이효숙 최봉식 최신주 오국환-이은희 김대식 배운주 이은옥 김순호 김석재-손혜옥 임근일-양은숙 이영순 최영영-박지영 정선희 유제숙 김지영-김민영-김근호 김현성-이미화 김창균-임예진 안진성-문경화 서정래 이명 박동욱-김지영 윤홍광 장영숙 김요한-김지현 김운주 김운서 이명재-구윤진 여동훈-백소정 정창호 김중복 김수득 최칠규-한영화 장유진 정년영 이정미 최양호-오난희 신승훈 최승화 유경형-리종화 오유라 장현규 최신혜 최신영 강복 올림픽2 올림픽3 장기리락2
헌당헌금	정운돈 이남현 전정아 조부영 이효숙 김미선 최양호-오난희 최봉식-최신주 이정미 장영호-소성국 오국환-이은희 김중복 임영순 김순호 김수득 정창호 이명재-구윤진 김요한-김지현 유제숙 김석재-손혜옥 박동욱 김지영 김수형 김현성-이미화 김지연 김민영-김근호 정향란 정선희 최승하 채재우 임근일-양은숙 이은옥 배운주 이명 오유라 장현규 최신혜 최신영
장학헌금	최봉식 최신주 이효숙 송영희 신승훈 유경형-리종화 김중복 최양호-오난희 김석재-손혜옥 이영순 박동욱 김지영 최승하 이명 오국환-이은희 최칠규 한영화 임근일-양은숙 정창호 김순호 이명재-구윤진 김요한-김지현 오유라 정선희 장현규 최신혜 최신영
간담꽃꽂이	유승범집사가족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16:18)	건축헌금 합계 : 4,915,582,028원
일반헌금계좌 : 국민은행 836-21-0026-609 (예금주:최정웅)	신한은행 100-013-769840 (예금주:참사랑교회)
건축헌금계좌 : 국민은행 521001-01-037631(예금주:참사랑교회)	신한은행 100-022-072886 (예금주:참사랑교회)

2014년 구역조직 · 주간구역보고 (1교구)

담당교역자 : 강요한 목사, 진영애 전도사, 김요셉 전도사 / 총무 : 최진희 권사, 이은희 권사

지역	구역	구역장	권찰	구역원	현장보고			구역예배보고	
					디락방	미션홈	지교회	인원	헌금
1	1. 오금1	박인자	윤영애	배형석-박인자 정윤돈-최신영 이신순 이서운 윤영애 김영진-최혜숙 여상훈-노선희 배영광-정우연	8	1			
	2. 오금2	김주영	오세열	이재풍-김주영 김성열-오세열 이병부-김정엽 이군재-이순근 원철호-홍정아 김창균-임예진 임금선			12		
	3. 오금3	최진희	오난희	박동영-최진희 최양호-오난희 여동훈-백소정 신옥희 백민수-오정연 김창대-이정임 김영중 박순애	4	2	17		
	4. 오금4	홍명숙	김태운	손정환-홍명숙 김태운 전태숙 안진성-문경화					
	5. 오금5	박희영	양은례	정세완-박희영 손완식-양은례 최정웅-전정아 유제숙 김순이 백병기 김성진-유은숙	4	1	8		
2	6. 오금6	강창숙	한영화	윤두영-강창숙 최칠규-한영화 박점순 윤봉녀 임경순-양순옥 유성규-신혜선 김남숙 임선규 양재동 이명옥	1		4		
	7. 오금7	이은숙	권혜경	정연규-이은숙 주재진-권혜경 박철남-서정례 이종남 권은희 구희찬-권영숙 정은미 박신정 김태성 김준일-최숙영	6		18		
	8. 오금8	이명	김복란	이명재-구윤진 이기덕-김복란 배승찬-이명 백순덕 이희성 노정옥 김선엽-전상희 김영숙 김윤숙		1			
	9. 오금9	오신자	이정미	오신자 이상규-이정미 김순자 한상만-이영주 김선희 이정택-이은순 이하 백인숙	10				
3	10. 거어-미천	최후순	김장호	최영철-최후순 이용도-최재경 강요한-유자연 이한수 송명환-남원정 윤경배-김영숙A 오영숙 김장호 정창수-김소순 하종석-박선희 김선주 박순봉-정은숙 오석중-최영애 호민수 전승원 천용 김옥순B	5	1			
	11. 장자-기락	송영희	김금남	구자성-송영희 김금남 송길호-최신혜 최민자 니경철-신현식 정중수-황숙영 박희자 이미화 김옥순A 박미희 이희연 임영순 이정수-장유선 도정호-유경순	9	1	2		8,000
	12. 문정-기락	이은희	송미경	오국환-이은희 장영균-송미경 김요셉-김해정 최석환-김명화 김석재-손혜옥 이규만-이은임 한승희 임덕기 박승건 김옥이 도규철-이연균 권윤정 김재환	7	2			
	13. 강서	최신주	이하나	최봉식-최신주 박성혁-이하나 도상철-채희은 박미성 구황경-이선미 이종관-서숙정					

- 1교구 전도인 : 서정례 오신자 송영희 박인자 이명 홍명숙 오세열 최진희 이은희 이은숙 권혜경
- EBS, 새가족요원 : 최진희 이은숙 송영희 전정아 이은희 오국환 김성열 박동영 이수용 김석재

2014년 구역조직 · 주간구역보고 (2교구)

담당구역자 : 정윤돈 목사, 이남현 준목, 이희숙 전도사 / 총무 : 이미자 권사, 유경선 권사

지역	구역	구역장	권찰	구역원	현장보고			구역예배보고	
					디락방	미션홈	지교회	인원	헌금
4	14. 송파	양은숙	장경숙	임근일-양은숙 윤홍광-장경숙 김길만-김명숙A 김종복 유영석-박승숙 박형숙 배운주	1				
	15. 잠실	조영주	김경희A	박광현-조영주 김경희A 김남숙A 최창영-박지영 김미선 윤순옥 이민수-김숙희B 한영숙 김소라 김옥천-곽은순 문경빈 이병오 안상현 김영희A 권순만-최형란	2				
	16. 성남수서	임소순	김경애	임소순 김경애 강현자 명충현 이원환-윤현정A 김은진 이정민 한미자	1				
	17. 방이1	이미자	조부영	이수용-이미자 김윤섭-김명자 고광석-이은순 김홍기-문길순 김정순 박광우 김요한-김지현 여준석-양경아 조부영 김성배	5	1			
	18. 방이2	이계옥	홍미경	최명홍-이계옥 최재혁-홍미경 김복님 박현우 김형좌-김정혜 김수득-이미숙 이학순-위승자 이정탁	2				
	19. 방이3	박은진B	심수연	윤기영-박은진B 이성도-심수연 박진순-이희숙 김경산 박기범					
5	19. 올림픽1	장길순	이영순	유윤식-장길순 이영순 정년영 박준석-설정화 서숙자	1				
	20. 올림픽2	강승자	홍승희	김경수-강승자 허경열-홍승희 김대욱-박유신 김정연 권귀순 박정금 박준영-허지선			3		18,000
	21. 올림픽3	양경심	이효숙	박엽재-양경심 이효숙 이은옥 김수형-이현주 박준민-황인선 김은정 전미	1		2		16,000
	22. 성내	정형란	김지영B	정형란 진영애 최영철-최후순 신형민-김영이 진희성-김종남 이두용-이영수 유영한-남옥자 조모현 한경숙 오인태-김지영B 정윤희 김춘량		1	2		
	23. 둔촌	유경선	김경희B	정철호-유경선 이용근-김경희B 김현-임경미 장영호 최두영-오주희 전병호-윤미경	6	1			
6	24. 천호	리종화	윤태자	유경형-리종화 김성재-윤태자 이상철-유동화 김장환-김지연 이영운-강성순 이광철-엄정희 김숙희A 김미경 유승범-주은경 유승환-최아현 신한수-이은주 이대수-홍경아 서정구 최아름	4		1		
	25. 고덕	박영인	박난순	신승훈-박영인 장성순-박난순 이명숙 심경희 박형석-김돌봉					
	26. 남양주	변연숙	은옥화	김인중-변연숙 송종국 은옥화 차동만-김선옥 김선한-박은진A 김선화-김정민 송진한-박영미 송주한 이옥순 이수					
	27. 강북	이순덕		이정윤-이순덕 김용국 김종윤 박재현-황영주 이춘화					10,000
	28. 강남	박희순	김순호	안경호-김순호 김원일-전인숙 김구영-빌마 박희순 정문철-이선아	1	1			
29. 하남	서성원	최명자	서성원-최명자 김영희B 박동욱-김지영A 이옥희 손병순						

- 2교구 전도인 : 양경심 박영인 유경선 장경숙 주은경 조영주 김경희A 홍승희 최후순 강승자 이미자
- EBS, 새기독교윌 : 이미자 조영주 박영인 유경선 양경심 오국환 김성열 박동영 이수용 김석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시키는 성전

학개 2:1-9, 누가복음 12:29-32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쁨과 감격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 성전을 지어야 할 백성들은 가난했고, 외부에서는 여러 세력들이 방해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는데, 이 상태가 오래 가면서 백성들이 지쳐 버리게 되었다. 자기 연합과 한계가 크게 느껴지게 되었다. 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말씀을 받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든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란다.

1.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한다.

- (1) 눅12:32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도 상관없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보잘 것 없고 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다(학2:3). 하나님은 비리새 교회나 중세교회처럼 강하고 부유한 자가 아니라, 초대교회나 개혁자들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소수를 통해 역사하셨다. 약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속지 말라.
- (2) 두 번째 조건은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이다. 스룹바벨은 총직사,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교역사, 모든 백성은 렘넌트와 성도를 말한다. 즉, 온 교회가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학2:4).
- (3)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되어진다는 것이다(학2:5).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출애굽 때 일하셨던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 (4)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나? 성전 건축 시작 전을 보면, 가난이 떠나지 않았다. 재난, 재앙, 방해꾼이 계속 일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다(학2:19). 은도, 금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학2:8).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2. 연약한 우리가 세우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 (1)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성전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학2:6). 사도행전 4장에 성령충만이 임하니까 또한 곳이 진동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 (2) 학2:7에 보니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행2장에는 그 중개로 15개 나라가 진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3천 제자와 산업인이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다.
- (3) 이때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몰려올 것이라고 했다(학2:7).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전도를 지속하고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였고, 천하가 기근에 시달려도 안디옥교회는 현금할 경제가 있게 하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의 대재벌이 되어 전도자와 교회를 돕게 하셨다.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 (4) 하나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학2:9).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세운 것이 솔로몬 성전이다. 규모도 크고 화려했다. 그러나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부족해 보여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우는 성전이다. 말씀운동을 통해서 강대국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살렸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짓는 성전이다. 전도자가 세우는 성전이다. 남은 자, 렘넌트들이 세운 성전이였다. 부족해 보여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 제3성전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세운 성전이다. RUTC를 마음에 품고 모델로 짓기를 원해서 세운 성전이다. 반드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 (5) 학2:9에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했다. 헌당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 삶에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성전과 성전에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다. 여호와와는 누구신가? 모든 왕 중의 왕이요, 모든 주 중의 주이며, 모든 전쟁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이길 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란다.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불신앙을 결박하고 무너뜨리시기 바란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마음 속에 각인시켜라.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시킬 만큼 증거와 기적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한다.

전도 개인화

사도행전 19:1-7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가?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현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문화에 놀리면서, 그 문화의 흐름에 끌려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만 되겠다. 이것을 보고 전도라고 한다. 삶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내도록 결단하는 것을 3오늘이라고 한다.

1.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

- (1)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성장하고 부흥해야만 한다. 그러나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자체는 전도가 아니다. 그러면 정말 전도란 무엇인가? 요셉이 했던 것처럼,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 (2)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주변에 이 사실이 당연히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바로 왕이 보았다(창39:2, 창41:38).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 (3) 그러면 결과가 온다.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되어지다 보니까, 점점 현장이 변화되고,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살아 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두려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니까, 그때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진짜 전도라고 한다.

2. 3오늘 :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매일 예비해 두신 것을 찾는 것

이런 전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도를 두고 매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 이것이 오늘이다. 어제는 지나갔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오늘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 (1) 그 인에는 만남이 있고, 장소가 있고, 삶의 스케줄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전도와 연결되는지를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 생각하고, 이것을 두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다. 억지로 하지 말고, 편안하게, 되는 만큼 하면 된다. 이것을 오늘의 전도라고 한다.
- (2) 만남, 장소, 스케줄이라고 하는 오늘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방법은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나, 그 주간의 강단이나, 오늘의 기도수첩 속에 그날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씀들이 있다. 그 말씀을 잡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해 내는 것이다. 오늘의 전도를 두고, 오늘의 말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 (3) 오늘의 전도를 놓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기도 스케줄을 정하고, 그 중심으로 삶의 스케줄을 채워 나가라. 이것이 오늘의 기도다. 오늘의 전도, 말씀, 기도를 3오늘이라고 한다. 이 속에 우리의 삶이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3. 전도 개인화 : 나의 전도가 찾아지는 것

이 삶의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맞는, 내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전도가 찾아진다. 체질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전도의 개인화라고 한다.

- (1)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나의 시간표와 현장이 발견된다. 어디를 가도 전도를 위해 나에게 예비해 두신 때와 날, 자리가 있음이 보여진다는 말이다. 바울은 에베소 현장을 두고 전도를 품었다. 그랬더니 만남의 축복이 오게 되었다.
- (2) 그러면 나에게 각인된 '말씀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 자기에게 성령이 오심으로써 축복을 누리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된다. 정리되어 있는 복음 메시지가 이때 딱 나오는 것이다.
- (3) 그러면 그 중에서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그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열두 명의 제자였다. 이게 또 에베소뿐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하는 문으로 연결되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복의 권위이다.
- (4) 그뿐 아니다. 한 번의 개인전도가 영원한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빌립은 길 가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살렸는데 아프리카의 문이 열렸다(행8:26-40). 아나니아는 바울 한 사람을 살렸지만 시대를 살리게 된 것이다(행9:1-15). 3오늘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이 응답의 날, 그 축복의 날이 오게 되어 있다.

개인전도를 위한 기도와 실천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조금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살려내야 할 사람이 나의 가까운 곳, 주변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명단을 정리해 보라. 30명도 괜찮다. 10명도 괜찮다. 이것을 적어보고, 기도로 연결시키면 된다. 만날 사람, 만날 장소, 그런 스케줄과 할 일이 적어 보고,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켜 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 과거와 전혀 달라진 나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 전하세

(M.M. ♩ = c. 96)

세계복음화전도협회

D A/C# G/B₃ D/A GM7 E/G# A sus4 A7

예 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5 D A/C# G/B₃ D/A GM7 A sus4 A7 D sus4 /F#

예 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 세 *Fine*

9 GM7 D/F# Em7 A7 D GM7 D/F# Em7 A7

사단의 왕국을 - 깨뜨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 길 되신 주-의 주 -

13 GM7 D/F# Em7 A7 D Em7 F#m7 G A sus4 A7

- 죄에서 해방하 - 신 어린양 예 - 수 감사 하 세 찬양하 세 증 거하 - 세 *D.C.*

예배찬송 해설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이 찬송은 200여 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애창되어온 유명한 찬송으로서, 영국의 어거스터스 토플레디(Augustus Montague Toplady, 1740~1778) 목사가 1776에 작사한 찬송이다. 곡명 'TOPLADY' 는 영국의 토머스 헤이스팅스(Thomas Hastings, 1784~1872)가 1830년 에 작곡하여 작사자의 이름으로 곡명을 삼은 것이다.

1898년 6월 런던타임스(London Times)에 실린, 윌리엄 웰스의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천둥과 번개를 치며 폭풍이 쏟아지는 어느 날, 토플레디는 석회암으로 된 두 개의 바위가 하늘을 찌르는 비위듬으로 비를 피해 들어가서 겨우 숨을 돌렸는데, 이 땅은 내 영지(領地) 끝 블랙던에 있는 쿰베 버링턴이었다. 안정을 되찾은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세 반석 열려서 Rock of Ages, cleft for me / 내가 주님 안에 숨게 하소서 Let me hide myself in Thee> 하고 읊었다. 연필을 꺼내 들고 종이를 찾았으나, 카드 놀이하다가 넣어진 다이아몬드 식스(6) 뷁엔 없었다. 그는 거기다가 1절을 적어 넣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령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갈라진 틈에서 주님의 창 자국을 연상했던 것이다."

16세에 극적인 회심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된 토플레디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였다. 그는 '복음 잡지 Gospel Magazine, 1776년 3월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하여 논문을 게재하였다. "만약 1초에 한 번 꼴로 죄를 범한다면, 모든 사람은 각자 20세까지 6억 3천만 번, 40세까지 12억 6천만 번, 60세까지 18억 9천만 번, 80세까지 무려 25억 2천만 번이나 죄를 짓는 셈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수많은 빛을 다 갚을 수 있겠는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고,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 주셨다." 그리고 이 논문의 결론 부분에 자신의 찬송시를 기록했다. '존 웨슬리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결해진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의 성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고 칼빈주의를 역설한 다음, 마지막 결론으로 1절을 실었던 것이다. 후에 2~4절을 추가하였다. (참고 : 오소운, 21세기 찬송가 해설)



기도제목

1.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교회”(사59:21) 약속대로, 다음 시대를 살릴 후대운동을 준비하고 응답을 누리도록
2. 2014 RUTC시대, 전도자의 체험을 위한 일심(빌3:8-21), 전심(행27:10-25), 지숙(롬16:25-27)의 주역이 되도록
3. 전도운동을 위한 3천 제자와 3백 지교회가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송파강동 지역복음화를 위한 1만 2천 제자, 수도권복음화를 위한 20만 제자,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가 일어나도록
4.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웹넛트 운동을 이끄는 교회가 되도록, 헌당을 위한 참된 헌신이 누리지도록
5. 이를 위해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와 중직자들, 선교 현장의 전도자들에게 다섯 가지 힘이 회복되도록

교회를 섬기는 이들

부목사	정영돈	don0615@hanmail.net	010-8033-5678	사무장로	김경수	010-8885-2380	신승훈	010-9006-1323
	강요한	johnriver@naver.com	010-4108-9519		유경형	010-5212-0823	강승자	010-8854-2380
	이남현	ramyuni@daum.net	010-3505-0108		최영철	010-3455-3675	김성열	010-3591-7233
준목	김오섭	kys0911@daum.net	010-2821-2414		주재진	010-3749-9799	서정례	010-4808-7984
	전도사	이희숙	camp2001@hanmail.net		010-9491-6347	윤우영	010-4534-8550	장영근
진영애		anjin1130@hanmail.net	010-9913-2419		이수용	010-2267-2751	리중화	010-2473-8212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이명재	010-9152-7331	송영희	010-2258-3489
사무	박난순	pns3555@hanmail.net	010-9930-5558		오국환	011-278-0166	강현자	010-2749-5012
관리	김수득		010-4603-0888		정연규	010-3740-0784	김선욱	010-2338-4685
찬양대	(지휘) 최영철 이종관 황인선 (피아노) 주혜진 이서은 최승화 최후순 (오르간) 김신혜 (첼로) 이영화 조유연 (비올린) 노유경 유자연 강예은 문경화 (플루트) 이지혜 최중헌 (클라리넷) 이민정				협동장로	이군재	010-9012-2387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사제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낮예배	1부/07:30	1층비전홀	태영아부	수11:30	1층비전홀	새가족훈련	주일10:20	2층VIP실
	2부/11:00	5층참사랑홀	유치부	주일11:00	3층아트홀	복음소식	주일13:20	4층당회실
주일오후예배	주일14:30	5층참사랑홀	어린이부	주일09:00	3층캐뎀트실	개회기도수첩	주일13:20	3층데이케어
수요기도회	수10:30	1층비전홀	중고등부	주일09:00	1층비전홀	호흡치유	주일13:20	4층자료실
	수19:30	1층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14:00	1층비전홀	EBS제자훈련	주일13:20	2층VIP실
금요기도회	금20:00	1층비전홀	소망부	주일13:20	3층캐뎀트실	치유	주일13:20	4층세미나실
새벽기도회	월~토05:30	1층비전홀	사랑부	주일13:00	3층아트홀	초등시명자	주일13:00	3층캐뎀트실
핵심재방송	주일13:20	3층캐뎀트실	MH시명자	주일16:00	3층캐뎀트실	중고시명자	주일13:00	3층캐뎀트실

국내외선교지

(파송선교사 1, 웹넛트선교사 1, 협력선교사 4)

해외 선교지 (5)	해외파송자 (26)
(일본 히로시마 참사랑교회) 심주환-김현숙 (070-8161-0650, 広島県 広島市 安佐南区 山本3丁目 2-9) (A국) 김형우-이소진 (070-8637-2024) (몽골) 이병부-김정엽 (필리핀/협력) 김현덕-조성신 (남수단) 피터 투터	(미국) 최형만-권순민 허지선-박준영 김국한 박석훈 조유연 이슬 정예준 (캐나다) 심수연 (중국) 김보경 윤소현 이은주 박주은 (일본) 이정민 (필리핀) 박정민 (태국) 이민수-김숙희 (미카오) 김원연 (호주) 박영준 박영환 (독일) 배영광-정우연 (영국) 박경아니콜라 (네덜란드) 배고은
협력단체 및 국내외 선교후원지 (9)	군파송자 (7)
(사)세계복음화전도협회, RUTC방송국, 인터넷총국, 필리핀다락방신학교, 코스타리카 시온교회, 목포장애인 요양원, 국제한국입양선교회, 참사랑간기보호센터, 사랑선교회(참사랑의 집)	이웅 채정우 윤대현 김재우 박주영 김수 김희량